김나이 / 김동근 / 김범호 / 김성의 / 김시울 / 김유진 / 김인규 / 도황주 / 박경소 / 박민선
설유진 / 신승열 / 안지형 / 이수윤 / 장병욱 / 전진모 / 조익정 / 조종훈 / 하영미 / 황준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2015 AYAF 공연예술분야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2015 12/30 - 2016 1/31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 동숭아트센터 동숭소극장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 탈영역 우정국 / 문화역서울284 RTO / CJ azit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내며,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진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습화된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처한 각종 환경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켜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① 예술가의집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주본관)
③ 창의예술인력센터(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④ 실험무대(창의예술인력센터)



❶



❷



❸



❹

축하의 글

우리 공연예술의 미래,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9년도부터 향후 우리 예술을 이끌어 갈 젊은 예술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AYAF)>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그동안 각 분야별 차세대 예술가를 집중 지원한 효과들이 예술 현장에서 하나 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는 선정된 차세대 예술가들이 창작성과를 발표하는 릴레이 공연입니다. 2015년 공연예술분야에서 선정한 차세대 예술가는 모두 20명이며, 연극분야 김유진·설유진·전진모·황준형(4명), 무용분야 김나이·김범호(김모든)·김성의·도황주·안지형·이수윤·하영미(7명), 음악분야 김인규(1명), 전통예술분야 김동근·김시율·박경소·조종훈(4명), 다원예술분야 박민선·신승열·장병욱·조익정(4명)입니다.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일곱 곳에서 올 한 해 동안 열정과 역량을 기울여 준비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올 한 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예술분야 차세대 예술가들에게 창작비 지원 외에도 창작과정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전문가 자문, 그리고 타 분야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자 기획탐방(생태학, 과학문화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외에도 예술가 개인, 개인이 몰두했던 열정과 도전들은 말로 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넓은 발전과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은 '차세대'란 이름의 미완의 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이번 창작성과 발표공연에 큰 기대를 가지셔도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어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차세대 예술가들이 성장해 나가는 현장마다에서 충실한 벗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예술가를 선발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심의위원과 멘토 분들, 그리고 작품화 과정에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퍼실리테이터 네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치열하게 열정과 고민을 이어 온 차세대 예술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AYAF)>을 계기로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퍼실리테이터의 글

AYAF의 끝은 시작이다

차정훈/오준석

AYAF 사업은 이제 예술계의 젊은 창작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아닌 '사람'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이라는 다른 지원사업과는 다른 지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AYAF 사업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퍼실리테이터의 사전적 의미는 조력자, 협력자입니다. 실제로 선정된 예술가들에게 기획제작영역에서의 조언자가 되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주된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단순한 조언자로 그쳤던 것은 아닙니다. 선정된 예술가들의 상황과 고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창작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필요한 경험이나 사례들을 찾아 들려주기도 하고, 극장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프로젝터나 포그머신 같은 것들을 공짜로 구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등 상황마다 다른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AYAF 퍼실리테이터들은 AYAF 사업에서 만큼은 신진 예술가들이 외적인 요소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완성도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그들의 예술적 작업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진 예술가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나름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을 세우게 되었는데, 첫째로 세운 원칙은 '모든 창작 제작활동에 있어서 선정된 예술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한다.'입니다. 신진 예술가가 창작뿐 아니라 극장 대관부터 인력구성, 예산조정과 홍보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이후 창작자가 다른 영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원칙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작업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입니다. 신진 예술가들은 처음 지원 사업을 냈을 때는 담대하지만 사업에 선정되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마주하면서 조금씩 궤도를 수정하게 됩니다. 공연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진 예술가들이 시도해 보고자 했던 것들을 쉽게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공연의 완성도만큼이나 예술가 자체의 성장이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도가 있지만 무난하기만 한 공연 20개 보다는 공연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작품이 한 편이라도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술가들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지원사업의 개선점을 창의예술인력센터(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에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조율하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공연개발을 위한 리서치 이후 진행되는 개별 프레젠테이션을 20명의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작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자리로 바꾸기도 하는 등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창의예술인력센터(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의 일관된 사업운영 의지와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열정과 애정으로 함께 해주는 창의예술인력센터(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의 담당자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곧 20개의 공연이 올라갑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애정을 쏟았지만 결과는 항상 예측불가입니다. 일시적인 성과가 바라보는 이의 시선에는 때로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신진 예술가들은 비판에 대하여 불편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필요조건입니다. AYAF는 하나의 과정이면서 또 다른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AYAF가 한 번의 공연이 아니라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가 창작자와 창작자를 지켜보는 이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고민 중인 AYAF의 신진 예술가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후에 현장에서 다시 만나 좀 더 즐겁고 신나게 현장의 동료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의 글

김윤희 창의예술인력센터 팀장
AYAF 공연예술분야 총괄(P.M)

AYAF “창작 소통 플랫폼”

AYAF 사업은 차세대 창작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예술위원회에서 도입한 신진 예술가 육성지원 사업이다.

2013년부터 공연예술분야는 인큐베이팅사업으로 전환되고 경기도 소재 창의예술인력센터(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에서 5개(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의 분야를 통합하여 매년 20명 정도의 창작자를 선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며, 그 후 창작자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예술현장에서의 신진 창작자들의 전문 인력 투입으로 창작 활동에 대한 기대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술위원회는 아주 잘 설계된 지원사업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 여러 가지로 해결하고 가야하는 과제가 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AYAF에 지원하는 신진 창작자들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지원사업과는 확연히 다르게 창작자가 선발 되는 그 순간부터 집중적인 AYAF 사업의 이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 및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담당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AYAF 사업을 살펴본 결과, AYAF 사업은 현재 국·내외 타 지원 사업과 비교하더라도 절대 뒤지지 않는 프로그램운영의 차세대(발굴·육성)지원 사업이다.

여기에 충분한 사업기간의 검토와 사업 설계 당시 기획 단계부터 창작과정과 아카이빙 자료에 대한 기록과 관리·유통 등을 생각하고 보완 추진된다면 올해를 기반으로 향후 한 단계 더 성장된 사업으로 다양한 지원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 AYAF 사업은 창작자에게 지원사업의 이해 및 개인의 정산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예술가 성장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사업 추진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창작자 본인이 속해 있는 예술분야만이 아닌 타 분야 또는 비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획특강(생태학, 과학, 문화 등)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작자의 창작소재 개발을 돕고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리서치는 창작자 스스로 계획을 세워, 본인의 창작 작업에 필요한 국내·외 자료 조사 연구를 하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창의예술인력센터(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의 실험무대에서 1박2일간 창작과정 중간발표를 진행, 창작자간 창작 과정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을 기반으로 각자의 조사 연구결과를 작품제작에 반영하고 최종 공연 발표 후에는 선정단계부터 공연발표까지의 창작전반의 과정을 창작자가 직접 기록하고 창작노트를 제작 발간하여 창작자의 공연발표영상과 함께 AYAF 사업의 아카이빙 자료로의 활용을 올해 첫 시도로 준비 중이다.

AYAF 창작 소통 플랫폼을 통해 창작과정 및 결과발표에 대한 자료들이 기획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기록, 유지 관리되어 다양한 창작자간 소통이 원활해진다면 향후 신진 창작자들의 네트워크 확장은 물론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AYAF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젊은 창작자들이 첫 출발부터 같이 소통하며, 다양한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최종 공연발표와 함께 아카이빙까지 이루어지는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이다.

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인력육성 사업을 통해 창작에 대한 꾸준한 열정을 가지고 매년 한발 성장해 가는 창작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지원할 것이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공연 일정표

분야	이름	공연명	공연일시	공연장소
전통예술	박경소	가장 아름다운 관계	12.30(수)~12.31(목)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무용	김성의	Return Ticket	1.5(화)~6(수)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전통예술	김동근	봉덕이 찾기	1.8(금)~1.9(토)	CJ azit
음악	김인규	도시광대	1.8(금)~1.9(토)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무용	도황주	Contact-변:태	1.8(금)~1.9(토)	문화역서울284 RTO
다원예술	박민선	사이언스 쇼: 스페이스 로맨스 (The Science Show: A Space Romance)	1.8(금)~1.10(일)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무용	하영미	쭈크러진 창(A torn window)	1.9(토)~1.11(월)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다원예술	장병욱	어닝쇼크(Earning Shock)	1.14(목)~1.20(수) *월요일 공연없음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무용	김나이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1.15(금)~1.16(토)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전통예술	김시율	피리독신	1.15(금)~1.17(일)	문화역서울284 RTO
전통예술	조종훈	조종훈의 古今 鼓	1.19(화)~1.20(수)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연극	김유진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	1.22(금)~1.24(일)	문화역서울284 RTO
다원예술	신승열	고비도시(Gobi+city)	1.22(금)~1.24(일)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무용	김범호(김모든)	침묵의문(Gate of Silence)	1.22(금)~1.24(일)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무용	이수윤	Inherent Vice(내재적 손실)	1.23(토)~1.24(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연극	설유진	초인종	1.28(목)~1.31(일)	동숭아트센터 동숭소극장
연극	전진모	버려드릴까요?	1.28(목)~1.31(일)	문화역서울284 RTO
연극	황준형	Monster-고백	1.28(목)~1.31(일)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다원예술	조익정	스폿(SPOT)	1.28(목)~1.31(일)	탈영역 우정국(구 창전동 우체국)
무용	안지형	해(咍) 탈	1.29(금)~1.30(토)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ARKO YOUNG ART FRONTIER 2015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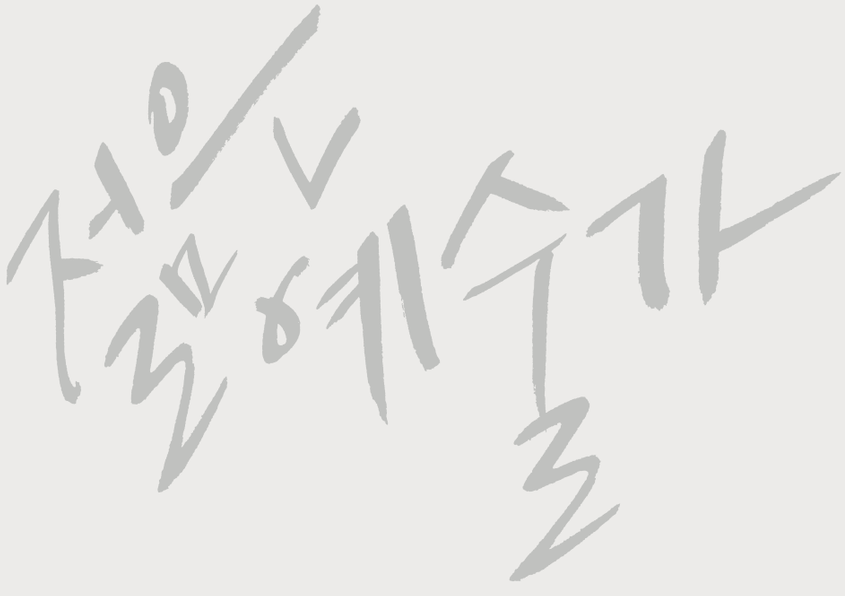
공연예술분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YAF 2015 공연예술 창작자 부문>은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분야의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YAF 2015 공연예술 창작자 부문>은 사업공모 및 추천을 통해 접수된 만 35세 이하 창작자 169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공연예술 분야 20명의 젊은 창작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창작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해외리서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창작 및 제작과정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자 작품 기획안 발표와 전문가 멘토링, 창작자와 공연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퍼실리테이터와의 매칭을 통해 창작 및 제작과정에 대한 밀착형 모니터링과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조사연구비, 작품제작비 등 기금 지원 외 시설 및 교육 지원 등 창의적인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ARKO YOUNG ART FRONTIER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공연예술분야(1~5기) 지원현황

1기 2009~2010년

연극 김민정/도재형/동이향/오경택/오승수/오치운/윤형섭/이명일/이양구/이준희/이진경/정범철
무용 김광현/김성화/김판선/류장현/손유정/신창호/염정우/유호식/이동원/전건호/정보경/정형일/홍정아
음악 강혜리/김범기/김수진/김시내/서수민/서진희/이동혁/이은영/이지현/임명진/주예원/최강지/최영미
전통예술 권아신/김명옥/김설아/김세경/김현채/김혜림/김효영/배광우/이강삼/이선/이수진/이승희/이창선/장은숙/조혜령/주윤정
예술일반 강재홍/김미선/김소현/김재청/유경숙

2기 2011~2012년

연극 고강민/김신록/김수희/김한내/이기쁨/이현빈/이정수/조효정/신재훈
무용 금빛나/권령은/길진영/김동규/김성훈/손명희/이인수/전혁진/허성임/홍경화
음악 박종화/김정은/김주현/김희라/선우지현/신만식/이수민/조정민/최정은
전통예술 강지은/권송희/구수정/박경훈/박민희/박인혜/윤주희/이나현/이슬기/이충우/차승민
다원예술 강민숙/권수임/김황/문유미/이강일/이경성/배정아

3기 2013년

연극 구자혜/윤미현/정소정
무용 김주희/양길호
음악 이유진/이은지
전통예술 박우재/양승환/이아람/손다혜
다원예술 김소은/김지선/박종빈/이희란/최은진

4기 2014년

연극 김명환/이은서/임지민/윤혜숙/전성현
무용 김준희/박연정/이상훈/전효인
음악 남상봉/서지훈
전통예술 진윤경/유민희/이정표
다원예술 김은영/김태원/남승연/서영란/이동규/조진옥

5기 2015년

연극 김유진/설유진/전진모/황준형
무용 김나이/김범호(김모든)/김성의/도황주/안지형/이수윤/하영미
음악 김인규
전통예술 김동근/김시율/박경소/조종훈
다원예술 박민선/신승열/장병욱/조익정

01. 공연예술분야 20명 선정

- 추천 및 공모를 통해 접수된 169명 중 1~2차 심사를 통해 최종 20명 선정
- 공연예술분야로 통합 선정

02. 오리엔테이션 개최

- 선발된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향후 사업진행사항 설명 등

03. 연구조사 활동

- 신진 예술가 역량강화 및 작품준비를 위한 연구조사 활동
- 신진 예술가가 직접 계획 수립하여 추진

04. 해외리서치

-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페스티벌, 워크숍 참여 등 리서치 활동 추진

05. 신진 예술가 성장에 필요한 교육 추진

- 신진 예술가의 성장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제공
- 생태학·과학창의문화 특강, 무대예술전문교육,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창의예술아카데미 등

06. 중간발표 워크숍 및 전문가 멘토링

- 창작 및 제작과정에 대한 기획안 발표와 작품을 구체화시키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멘토링

07. 퍼실리테이터에 의한 밀착형 모니터링

- 공연예술 전문가와 신진 예술가와의 1:5 매칭
- 창작 및 제작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문제점 해결 등 추진

08. 오픈스튜디오

- 창작과정 일부 공개, 창작과정 및 작업에 대한 중간점검

09. 작품발표('15.12월~'16.1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 교육 및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공연작품 발표회

AYAF 2015 공연예술분야에 선정된 20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창작역량 강화 및 작품제작을 위한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작 작품을 완성했으며,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를 통해 작품을 발표합니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전통예술

박경소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예술전문사 과정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과정 수료
kyungsopark.com

수상경력 가야금 앙상블 아우라
퓨전음악그룹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2014~2016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2012 One Beat 펠로우
2011 AIR-Krems 입주작가
수림문화상 수상

활동 실적 2015 가장 아름다운 관계(정규)
2014 이웃이 되어주세요(싱글)
2011 이것은 가야금이 아니다(정규)
2010 기억조각(싱글)
2010 코스모브리즈 2: 숨(EP)
2008 코스모브리즈(EP)

2015.12.30(수)~12.31(목) 8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가장 아름다운 관계

The Most Beautiful Connection

작곡 **박경소** 연주 **박경소, 임지혜** 공간 **한수정, 서성협(G280)**
음향 **박재식(스윗사운드)** 조명 **이유진** 디자인 **유주연** 촬영 **권오경**
음반녹음, 믹싱, 마스터링 **박근상(젤리피쉬)** 기획 **권지민(비우다)**
운영 **안상욱(플랑크톤 뮤직)** 퍼실리테이터 **차정훈**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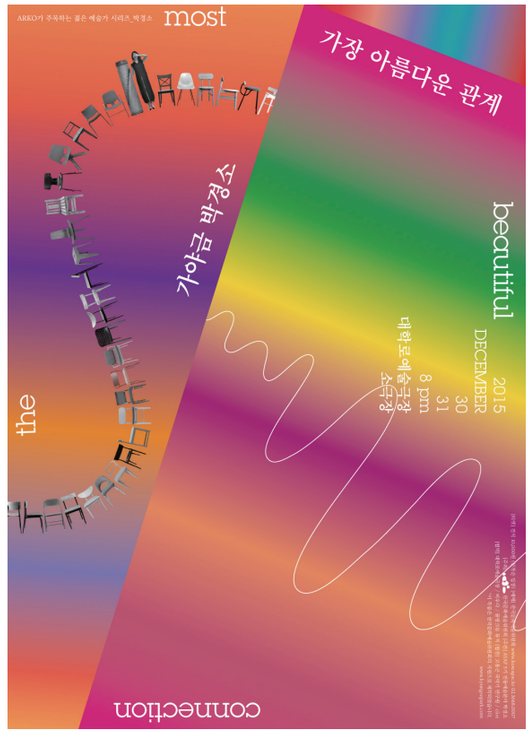
공존에 관한 구도, 자유스러움 그리고 평평한 어울림 <가장 아름다운 관계>

시공간도 초월할 수 있는 파장은 자유스러움의 정점에 서 있다.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음과 음악들이 그 자유스러움과 닮았다. 소리 역시 기본적으로 파장이다. 그 파장의 움직임이 아무리 작을 지라도 일단 생성된 움직임은 또 다른 움직임을 가져오고 또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마치 작은 눈 뭉치가 눈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자유스러움이 묻어난 하나하나의 작은 움직임은 분별없이 소중한 것이다.
자유스러움을 바탕으로 한 움직임의 모임과 그 어울림이 이 무대의 큰 틀이다. 서로가 서로의 움직임에 또 다른 움직임을 만든다. 상호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 움직임은 규칙적일 수도 비규칙적일 수 도 있고 또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의 아름다움 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시대에 따라 인식된 아름다움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아름다움도 한정된 아름다움이다. 규정된 '아름다움'이라는 틀에서도 자유스러워 지고자 한다. 어느 쪽이든 어떻게 들리든 틀린 것이 없고 어느 것도 맞는 것이 없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르다. 그저 어울릴 뿐이다.

작품설명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이의 가시적인 혹은 가시적이지 않은 상호 작용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며 어떠한 생각을 갖고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대답을 주고 받는가. 그리고 사실, 서로는 서로에게 어떠한 반응들을 필요로 하는 걸까.

달빛, 공기의 흐름
여행자의 언어
당신의 숨소리가 들리는 만큼의 거리
저만치 함께
두 개의 그림자
눈물을 삼켜버린 바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무용

김성의



학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졸업

수상경력
2014 공연과리뷰 PAF 안무상
2013 젊은안무자창작춤판
사)한국무용협회(전북) 안무상
2013 젊은안무자창작춤판 전라북도지사 대상

활동 실적
창무회 단원
<열정-아모르파티> 안무 및 출연
2015 광복70주년 기념행사(쿠바)
<안녕꽃-아리랑> 안무 및 출연
2015 일본오끼나와 한국인위령제 기념행사
<안녕꽃-아리랑> 안무 및 출연
2015 강동예술인총연합회 강동아트페스티벌 공감
<김매자류-삶> 출연
2015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열정-아모르파티> 안무 및 출연
2014 M극장 기획공연 춤과의식전
<열정-아모르파티> 안무 및 출연
2014 포스트극장창작산실 Rising Choreographers
<안녕꽃-아리랑> 안무 및 출연
2014 한국창작춤 한국무용제전

2016.1.5(화)~1.6(수) 8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Return Ticket

안무 **김성의** 출연 **이창수, 백주희, 김준영, 서진욱, 임성미, 김성의**
드라마투르기 **이창수** 조명디자인 **김익현** 무대디자인 **조일경** 음향 **신현필**
무대감독 **이도엽** 의상 **민천홍** 영상제공 **송일곤(영화 '시간의 춤')**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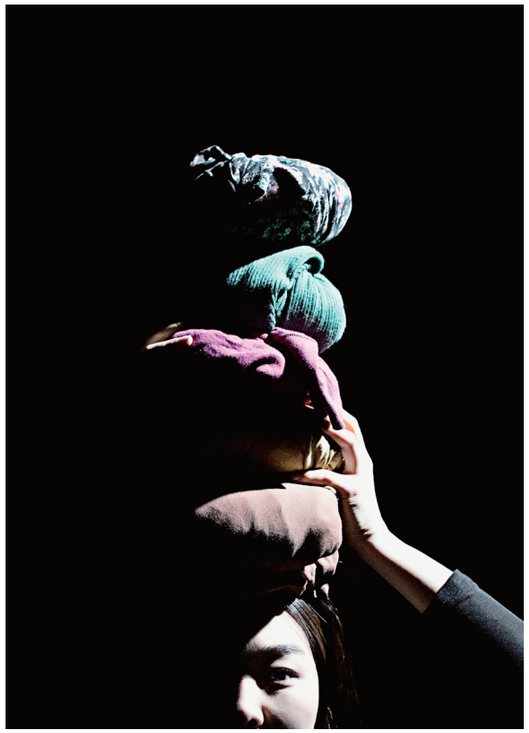
행복한가?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싶은가?

<Return Ticket>은 백여 년 전, 인천 제물포항에서 4년만 돈을 벌면 다시 귀향할 수 있다는 선전에 속아 멕시코로 가는 배에 올랐던 1,000여 명의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그곳에서의 착취의 시린 현실은 고국과 가족을 더욱 그립게 하였고, 그 그리움을 간직한 채 멕시코, 그리고 쿠바에서 정착해야만 했다. 쿠바속의 조선인, 이 사람들은 나를 쿠바로 이끌었다. 그래서 쿠바로 갔다. 사라진 쿠바 속의 조선인을 대신해 후손들이 나의 이끌림을 맞이해 주었다. 그 짧은 시간동안 못다 한 그들의 역사와 마주하게 되는 감격의 순간을 갖게 되었다.
자유, 희망, 열정 그리고 사랑. 조선인들의 혈통을 이어가는 세대는 지나갔다. 쿠바의 조선인, 그들의 5, 6세대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 그리움을 간직한 채 그곳에서 살아내고 있다. 그들은 이역만리 고국에서 날아온 낯선 여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들의 메마른 삶에서는 그려지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따스한 여유에 낯선 여인은 깊이 빠져 들어갔다. 점점.

작품설명

돌아갈 수 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당신의 손에 Return Ticket이 쥐어졌다.
이별, 그리고 이별. 떠나온 별을 더듬어 그려내는
쿠바의 조선인. 그들의 이야기.

이 티켓은 1905년 제물포항에서 시린 현실에 떠밀려 멕시코 행 IL FORD 호에 올라탔던 1,000여 명의 조선인 이야기에 의해 시작 되었다.
그들을 맞이했던 멕시코에서의 뜨거운 냉혹함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이별을 선물하였다. 멕시코에서 다시 쿠바로… 300여 명의 조선인은 멕시코를 떠나 쿠바에 정착하게 된다.
쿠바의 조선인들은 가늠이 되지 않는 고국을 더듬거리며 지금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내려 가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의 꼬리를 물고 아직 못 다한 이야기들을 꺼내어 물어본다. 돌아갈 수 있다.
어디로 갈 것인가?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전통예술

김동근



학력 국립국악중 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문사 수료

활동 실적 밴드 '고래야' 멤버
극단 우투리 음악감독

2016.1.8(금)~1.9(토) 금 7시30분/토 4시
CJ azit

봉덕이 찾기

연출 변정주 작곡 김동근, 이정면, 조용욱, 최덕렬, 송정
연주 김동근, 윤석만, 이명훈, 이아람, 최민, 김철진, 최영석
영상 권수진 퍼실리테이터 차정훈

기획의도

'봉덕이 찾기'는 본인보다 열 살 이상 나이가 많은 딸을 찾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대금연주자인 저는 퉁소를 찾고 또 그 퉁소와 함께한 여러 전통 관악기의 앙상블을 그리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저와 봉덕엄마는 어쩌면 실제로 찾기 위해서가 아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걷고 또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무언가를 찾았다가도 아님을 깨닫고 또 찾아야하는 모진 팔자….

작품설명

'봉덕이 찾기'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입니다.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지 않은 관악기들의 창작 앙상블과, 퉁소 레퍼토리의 민요들을 관악기 앙상블로 편곡하여 관객과 함께 봉덕이를 찾는 음악회입니다.
팔자, 사랑, 진경산수, 빙경(氷鏡) 네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관객과 함께 봉덕이를 찾아봅니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음악

김인규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 예술사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 예술전문사 졸업

수상경력 2011 <2010 창작산실 뮤지컬 작품 공모> 당선
– 뮤지컬 <삼선동 4가>

활동 실적 2015 서울음악학회 '어울림 II' 공연
<문둥북춤 II>(올림푸스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Regensburg, Salzburg, Frankfurt)
2014 바이올리니스트 이보연 리사이틀
<Hysteric Vigor> 위촉 초연(예술의전당)
2014 <문둥북춤 I> for Orchestra
(안동문화예술의전당)
2014 서울음악학회 '어울림 I' 공연
<Hysteric Vigor>(올림푸스홀)
2010 Pacific Rim Music Festival 초청
<달아, 달아>(UC Santacruz, Brandeis University)
2010 Bayreuth Festival 초청
(한국 바그너협회 장학생 선발)
2010 Ensemble 'Pan' 창단 연주회
<Divertimento for Strings> 위촉 초연
(성공회 성당)

2016.1.8(금)~1.9(토) 금 8시/토 4시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도시광대

작곡·음악감독 **김인규** 대본 **차나영** 안무 **김동호** 연출 **박성현**
출연 **허창열, 형남희, 노재경, 김은정** 지휘 **장윤**
연주 **심정은, 김예솔, 김민경, 김정음, 민슬기, 손아인, 주예지,**
양현일, 이서연, 송민제, 정세라, 윤정아, 박인영, 차다윤,
이재환, 조현우, 차창현, 김소엽, 김슬지, 선우진영, 정택수
인스펙터 **김준호** 무대감독 **박성현** 무대 **윤경선** 음향 **최용석**
조명 **권혁준** 의상 **우영주** 기획 **윤혜진** 멘토 **이건용**

기획의도

우리 전통연희 오광대놀이에 등장하는 다양한 개성 있는 캐릭터들, 말뚝이, 양반, 영노, 문둥이, 중, 할미 등이 겪는 갈등과 고민은 형태는 바뀌었을지언정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배계층의 어리석음과 위선, 타락한 종교인들,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울분….
이 오광대놀이를 소재로 삼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과 이야기가 담긴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였다.
우리 전통음악과 서양 현대음악의 어법이 어우러진 음악, 오광대놀이의 춤사위와 현대무용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음악-무용극을 만들고자 한다.

작품설명

사회의 최약자,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문둥이를 주인공으로 설정. 현대의 '칠포세대' 20대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외면의 모습은 불구에 무기력한 문둥이지만, 내면에는 열정과 활력, 패기와 해학이 넘치는 말뚝이의 자아가 숨어 있다. 새벽 → 아침 → 점심 → 저녁 → 밤 → 새벽의 시간순 구조이며, 부조리가 만연한 잿빛 도시에서 문둥이-말뚝이가 하루 동안 겪는 일들이 느슨한 옴니버스 형식으로 펼쳐진다. 국악기 네 대가 포함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이 극을 이끌어 간다.

I. Overture
II. 지난한 새벽
III. 무력한 아침
IV. 부조리한 오후
V. Intermezzo I
VI. 외로운 저녁
VII. Intermezzo II
VIII. 처절한 밤(문둥북춤)
IX. 미친 새벽(대동놀이)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무용

도황주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예술사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예술전문사 졸업

활동 실적
2015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그래서 그런겁니다.> 안무 및 출연
2015 MODAFE 국내초청작
<그래서 그런겁니다.> 안무 및 출연
2014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식탁> 안무 및 출연
2014 MODAFE sparkplace <식탁> 안무 및 출연
sparkplace상 수상
2014 국립현대무용단 정기공연 안애순 안무
<이미아직> 출연
2014 국립현대무용단 정기공연 안애순 안무
<불쌍> 출연
2014 불가리아 one dance week 초청공연 김호연 안무
<6degrees> 출연
2014 국립현대무용단 러시아소치동계올림픽
폐막식 출연
2013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김호연 안무
<6degrees> 출연
2012 LG 아트센터 기획공연 Pierr Rigal 안무
<Theatre of operation> 출연 및 유럽10개도시 투어
2011 국립현대무용단 정기공연 홍승엽 안무
<수상한 파라다이스> 출연
2010 국립현대무용단 창단멤버 홍승엽 안무
<BLACK BOX> 출연

2016.1.8(금)~1.9(토) 금 8시/토 3시
문화역서울284 RTO

Contact–변:태

안무 **도황주** 출연진 **김서윤, 도황주, 이세승** 무대감독 **이종우**
조명디자인 **김철희** 무대디자인 **인혜란** 음악작곡 **김성환**
기획 **국지수** 홍보 **강혜진** 사진 **정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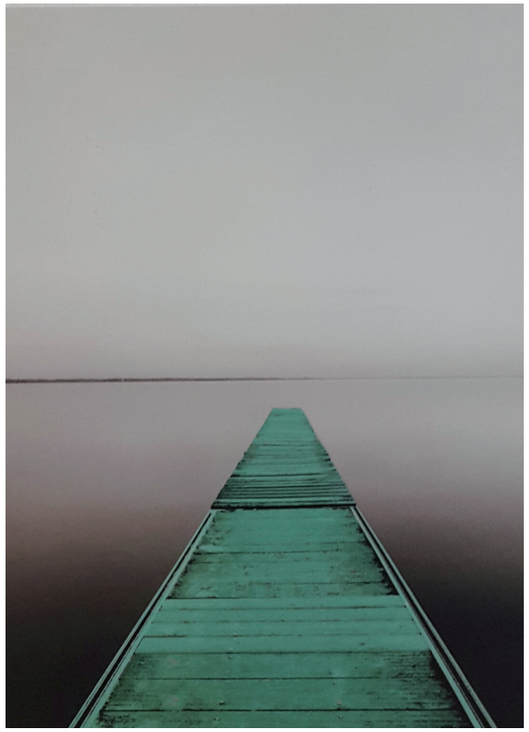
기획의도

나는 괴물과 살았다.
지금도 그 괴물들은 내 주변 어딘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으로 나를 몰아갔다.
나는 그들을 괴물이라 부른다.
괴물이 뿜어내는 스트레스는 나를 또 다른 괴물로 변태하게 하였다. 억울했다. 화가 났다.
나의 스트레스 수치는 하늘을 치솟았다. 내 몸은 아파하며 조금씩 변해갔다.
그들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을까? 왜 괴물이 되었을까? 우리 내면에 악한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일까? 현대 사회가 만들어내는 각종 악의 기운이 그들에게 뻗쳤기 때문일까?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현대인들의 지루하고 바쁜 일상…
우리는 목적이 흐려진 채 계속해서 내달리며 주변의 자극들을 흡수한다. 쉴 틈조차 주지 않고 계속되는 스트레스 환경.
이러한 환경은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다. 그들은 괴물이 되었다.
윤리적인 잣대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괴물은 과연 사회가 낳은 괴물인가? 열심히 달리기만한 가해자 없는 피해자인가?

작품설명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는 끊임없이 성과를 강요하며
우리를 내몰아간다.
목적과 이유는 흐려진 채 그저 계속 달릴 뿐이다.
우리는 우리를, 서로를 자극한다.
지속적인 자극에 노출되어 우리는 계속 변태한다,
괴물이 되었다.
과연 우리는 이 괴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다원예술

박민선



학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컬리지 퍼포먼스과 졸업

활동 실적
2015 <미스터 바넘 프릭쇼> 연출
2015 <잊을 수 없는 사랑> 연출
2015 대안공간 루프 <미칠전> 전시 참여
2015 수봉다방 <거대메기> 전시
2014 <낙동강 괴물쥐 뉴트리아의
삶과 죽음> 연출
2014 <댄스 마라톤: 패트리지아
파올리니와 함께 춤을> 기획
2014 <라스 메니나스> 공동연출 및 출연
2014 <종합예술의 밤 M.S.G.> 기획
2014 인천 아트 플랫폼 5기 입주작가
2013 가상관광퍼포먼스
<태국 라텍스 관광> 연출
2013 <잉어적 존재> 공연
2012 뉴욕 워터밀 국제 여름 프로그램 참여
2011~2012 런던 <판타스마고리아>
공동연출 및 출연

2016.1.8(금)~1.10(일) 금 8시/토 3시, 7시/일 3시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사이언스 쇼:
스페이스 로맨스

The Science Show:
A Space Romance

작·연출 **박민선** 출연 **박건우, 김시연, 김성혁, 박동조, 이슬, 최정산**
미술 **김이령과 박민선** 영상감독 VJ YOUNGSHIN
음악감독 **최성호, 특이점** 조명감독 **박현정** 멘토 **남긍호**
퍼실리테이터 **이동민** 티켓 매니저 **진실로** 디자인 FUTUREINFORM

기획의도

빌 브라이슨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과학에 대한 책인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역사'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앎을 위한 역사가 있고 그 앎의 과정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과학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이언스 쇼: 스페이스 로맨스>는 과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공연으로 '만약 과학이 재미있는 것이라면?'이라는 전제로 이 공연은 구상되었고, 과학에 대한 문외한이 과학을 다른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자 과학은 무한히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 되었다. <사이언스 쇼: 스페이스 로맨스>는 이렇게 시작되었으며 대중 과학서 탐독 등 리서치를 통해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작품설명

<사이언스 쇼: 스페이스 로맨스>는 과학자 칼 세이건이 보이저 호를 타고 성간 우주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전제로 한다.
이 상상은 2065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인류 최초의 성간 우주여행을 떠나는 철수와 영희의 모험 이야기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2030년 인류는 화성 이주계획에 성공하게 되고, 우주과학기술은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게 된다. 2065년 철수는 인류 최초로 광속의 절반 속도를 낼 수 있는 우주선인 오딧세이 호에 탑승을 하게 되고, 지구에서 4.24광년 떨어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로시마 센타우리로의 탐사를 떠난다. 철수는 수면 캡슐 안에서 10년 동안 잠을 자게 되고, 오딧세이호는 프록시마 센타우리계로의 초고속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이언스 쇼: 스페이스 로맨스>는 종합예술인 박민선의 연출, VJ YOUNGSHIN의 영상, '최성호, 특이점'의 음악, '김이령과 박민선'의 미술과 함께 하는 종합예술 퍼포먼스이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무용

하영미



학력
Hong Kong Academy for Performing Arts,
MFA in Dance
상명대학교 무용과 졸업

활동 실적
2015 비아프린지 페스티벌
<그림은 우리 님의 노래는> 안무 및 출연
2015 하이 서울 페스티벌
<바리, 오다> 안무 및 출연
2015 춘천 마임축제 <사색, 별> 안무 및 출연
2014 Hong Kong Arts Development
Council project grant
<공간 그리고 연인들> 연출
2014 Assignment theatre Taiwan
<The seed of my county> 출연
2014 Ichihara Art x Mix festival Japan
<Play at the Haunted School> 출연
2010 국제 현대무용 페스티발
MODAFE sparkplace <기발한 인연> 안무

2016.1.9(토)~1. 11(월) 토 7시/일 5시/월 8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쭈크러진 창

A torn window

출연진 양조아, 하영미

기획의도

부조리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NOT I>에는 '입'이 등장한다. 입은 어느 날 어떠한 충동에 의해 오랜 침묵을 깨고 말의 물줄기를 쏟아낸다. 나는 '입'이 쏟아내는 말의 물줄기 속에서 오랫동안 침묵해야했던 소외된 여성의 모습을 본다. 그녀가 겪었던 아픔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까? 그녀가 침묵했던 이유와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말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파편적 기억들, 심리상태, 신체 감각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 단서를 찾아본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 낼지에 대해 고민한다. 신체 움직임 리서치, 감각적인 무대 구현의 과정은 그녀에게 진실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일 것이다.

작품설명

사회라는 불가항력적 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는 침묵을 일관한다. 삶을 이어가는 이유인 '무언가'에 대한 추측은 손에 쥐어진 형체 없는 물질처럼 '무언가'를 벗어나지 못한다.
부조리 극작가 베케트의 <NOT I>를 모티브로 한 무용극 <쭈크러진 창>은 오랫동안 침묵하며 살아온 한 여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던져지듯 태어나 죽음으로 향하는 그녀의 삶이 파편적 기억의 회상의 구조 속에서 펼쳐진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다원예술

장병욱



학력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활동 실적 해보카 프로젝트(HaVokA Project) 연출
2015 <상하이 알리바이(Shanghai Alibi)>
–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선정작
2014 <씹을거리를 가져오세요
(Bring Your Own SIP)>
– 경기문화재단 별별예술프로젝트 선정작
2013 <베를린 알리바이(Berlin Alibi)>
2013 <다음 방으로(Next Room)>

2016.1.14(목)~1.20(수) 평일 8시/토, 일 3시/월요일 공연 없음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어닝쇼크

Earning Shock

연출 **장병욱** 구성 **김재동** 무대디자인 **김종석** 조명디자인 **이동진**
영상촬영/편집 **백성준** 영상디자인 **김부영** 음악 **윤현종**
무대/제작감독 **김태연** 그래픽디자인 **퐁당디자인** 조연출 **최혜진**
퍼실리테이터 **이동민** 출연 **송민경, 이민아, 황은미, 김석,**
윤현종, 조윤하, BJ

기획의도

2,000만 원 투자 하시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땅, 건물, 주식 등 투자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투자는 단지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상인들은 얼마에 물건을 떼어 와서 얼마의 수익을 남길지를 계산하고, 엄마가 자식을 학원에 보낼 때도 한 달에 얼마를 더 들이면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얼마가 오를지를 계산하며, 친구와 밥을 먹을 때도 이번 밥값을 내가 지불하면 식사 후 커피를 친구가 낼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며 자신이 투여한 노력, 시간, 자본 등의 모든 것을 계산하여 자신이 얻어낼 가치에 대해 계산한다. 이 계산적인 사회 안에서 해보카 프로젝트의 창작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노력에 비해 예술적, 금전적 보상을 얻어내는 것에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예술지원금에 기댄 채 "예술은 원래 이런 거야…"라는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자신에 대해 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닝쇼크(Earning Shock)>는 해보카 프로젝트의 장병욱이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의 원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적정한 수익을 얻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예술 작업이 가능할 것이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2014년 <씹을거리를 가져오세요> 2,000만 원 투자 대비 매출 16만 원. 2015년 <어닝쇼크>는 2,000만 원을 투입한 제작비 전액을 본 공연을 통해 회수할 수 있을지 무대 위에서 예술의 가치 교환을 실험한다. 해보카 프로젝트는 이번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다면 이미 당신은 '궁금함' 만큼 공연 티켓의 가치로 교환할 준비가 되었다.

작품설명

이 작업은 실제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창작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보카 프로젝트가 생각하는 예술의 원형을 잃지 않으면서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을 찾는 여정이다. 각 전문가들의 노하우들은 공연 내에 은근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배치되어 관객들을 이 상황 안으로 끌어들인다. 관객들은 자신의 돈이 이들의 작업에 대한 대가로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판단하며 공연을 즐긴다.
<어닝쇼크>는 표면적으로는 해보카 프로젝트가 본 공연의 '경제적 가치'를 탐구하며 지속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술 형식과 내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는 관객 경험을 통하여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바를 어떠한 방식으로 얻어내고 있는지 혹은 포기하고 있는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가치교환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져 준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무용

김나이



학력 Royal Ballet School 졸업(영국)
Durham University 학사졸업(영국)
New York University,
Tisch School of the Arts 석사졸업(미국)
서울대학교 박사졸업

활동 실적 – 무용수 활동실적(미국)
2006~2010 Mikhail Baryshnikov
2006~2010 GeraldCaselDance
2008 Armitage Gone! Dance
2006~2007 Aszure Barton & Artists
Bill Young and Dancers
2004~2008 Kyle Abraham/
Abraham.In.Motion

– 안무활동 실적
2015 <One> 안무 및 출연
2014 <장화홍련 revisited> 안무 및 출연

2016.1.15(금)~1.16(토) 금 8시/토 3시, 6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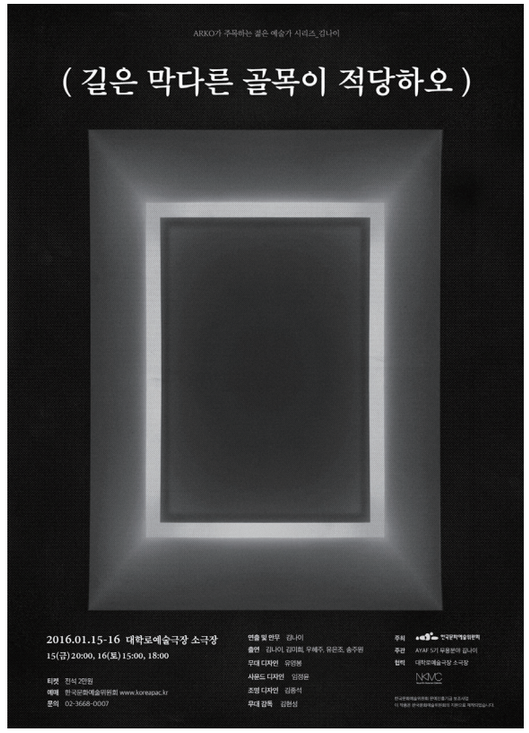
연출·안무 **김나이** 출연 **김나이, 김미희, 우혜주, 유은조, 송주원**
무대디자인 **유영봉** 사운드디자인 **임정윤** 조명디자인 **김종석**
무대감독 **김현성** 퍼실리테이터 **차정훈** 그래픽디자인 **김지윤**

기획의도

우리의 정서를 담은 근대한국문학을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우리가 익숙히 들어 알고 있는 이상의 <오감도:시제1호>는 난해한 작품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글이 아닌 신체로 <시제1호>를 해석하여 관객들이 다른 측면에서 이상의 시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체험적 공연을 제작한다.

작품설명

본 작품은 이상의 <오감도:시제1호>를 바탕으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나타난 공포와 절망 속의 삶을 현대화하여,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불안의 의식을 떨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골목길 속 '아해들'을 통해 그려본다. 나아가 본 작품은 현대 삶속에서 지속적으로 질주중인 우리의 삶에서 희망의 불꽃을 잡아보려는 노력의 결실이며 더 나아가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 본질에 관한 이야기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전통예술

김시율



학력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악학과 석사과정 졸업

수상경력
2015 수림문화상 수상
2011 제3회 대학국악제 창작부문 금상
2011 제27회 동아국악콩쿠르 피리부문 일반부 금상
2010 제30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피리부문 금상

활동 실적
현 김시율 아트컴퍼니 대표

2016.1.15(금)~1.17(일) 금 7시/토 4시, 7시/일 4시
(전시 전일 3시~8시), 문화역서울284 RTO

피리독신

출연 **김시율, 김은영, 이소월** 연출 **박연주** 조명디자인 **이동진**
무대디자인 **유주영** 기획 **김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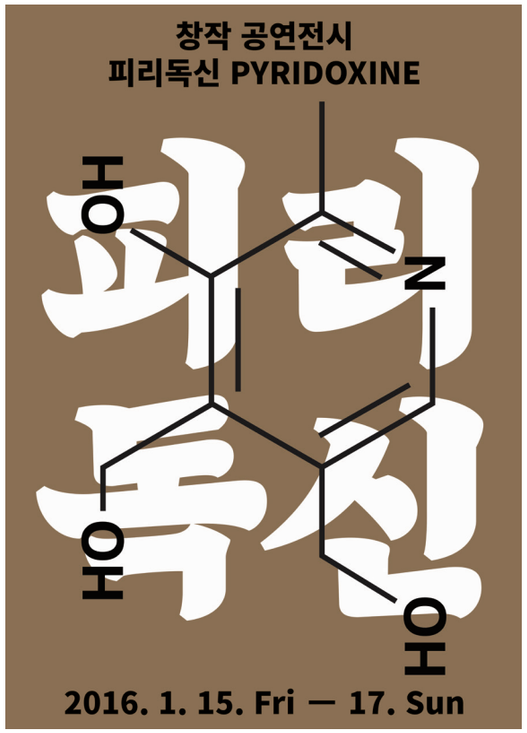
기획의도

우리는 수많은 허구가 판을 치는 거짓 세상에서,
만들어진 진실, 만들어진 영웅들 속에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피리독신'에서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젊은 예술가가 스스로 신(神)이 되어
우리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자 한다.

작품설명

모든 예술작품은 완성도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를 가지며, 분야별로 각 예술은 그 자체의 전통과 전승 속에서 발전해왔다. 피리 부는 김시율도 '국악'이라는 예술의 영역에서 그 구조의 한계를 한층 더 철저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음악의 신(神), '피리독신'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는 서울역사에 신전을 만들어, 그를 숭배하는 신도들에게 '전시와 음악 공연'이 변주된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전통예술

조종훈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전문사 졸업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한국음악학 석사

활동 실적

중요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82-1호 이수자
2015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초망자 공연
2015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정기공연
<나무 곁에 눕다2 – 거문 바다> 객원
2015 KBS 국악관현악단 제232회 정기연주회 협연
2014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 MAP
전통예술창작부분 선정 작·연출
2014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Journey to Korean Music
<The Ritual Music of South Korea's East Coast>
기획·공연
2011 조종훈 <해풍> 독주회
2009 조종훈 <풍류를 울리다> 독주회

2016.1.19(화)~1.20(수) 8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조종훈의 古今 鼓

피아노 **임미정** 죽훈·Didgeridoo **송경근**
가야금 **박연희** 생황 **김지현**

기획의도

장고는 현재 새로운 활용방안 및 창의적 연주법 등의 활발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통이 현재 그리고 미래와 호흡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주법을 개발하고 악기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의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주 오래전 장고의 조상격인 세요고는 채가 아닌 손으로 연주하던 악기였다. 지금은 그 연주법과 장단이 사라져 복원과 재연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분명 세요고는 존재했고 손으로 연주한 주법 또한 존재했을 것이라 충분히 여겨진다. 이번 작품의 기획의도는 세요고와 도자기 장고의 복원 제작을 통해 장고의 쓰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손으로 연주하는 장고장단의 다양성과 그 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 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전통음악과 호흡을 맞추는 공연으로 구성한다. 새롭게 복원 제작된 악기로 산조 음악을 반주하고, 무속음악 장단과 사물놀이 장단, 각 지역의 민속악 장단을 활용하고 응용하여 손으로 새롭게 연주한다. 기존에 채를 이용해 연주했던 이러한 음악들은 손으로 연주할 경우 그 다이나믹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새롭게 개발된 악기에 적합한 새 연주법을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다.

작품설명

1. 고금고금(古今鼓琴)
2. 시간여행
   – 작곡 조종훈, 생황 solo 구성 김지현
3. 고금 고(古今 鼓)
   – 구성 조종훈
4. 리강(漓江)
   – 작곡 조종훈, 죽훈(竹壎) solo 구성 송경근
5. 바다(海)
   – 작곡 조종훈·임미정, 작사 조종훈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연극

김유진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전문사(MFA) 졸업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활동 실적
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강사
전 국제연극평론가협회 IATC 웹저널
Critical Stages 편집간사
전 판소리만들기 '자' 대표

2015 <어쩔 수가 없어> 공동구성, 드라마터그
2014 <수궁가가 조아라> 드라마터그
2012 <삼바 디 데이즈> 작
2012 <해방구> 공동구성, 배우
2011 CJ 크리에이티브마인즈 연극부문 선정
<크리틱 퍼포먼스-지하철의 연인들?!>
공동연출, 구성, 배우
2011 <지하철의 연인들> 배우
2011 <허세가> 작·연출

2016.1.22(금)~1.24(일) 금 8시/토 3시, 7시/일 3시
문화역서울284 RTO

네이티브 스피커

Native Speaker

구성·연출 **김유진** 공동창작·출연 **김예경, 김정, 손보연, 송이원, 융, 이경후, 파이즈, 홍채림** 드라마터그 **전강희** 조연출 **최수진**
무대 **김혜원** 조명 **노명준** 사운드 **목소** 영상다큐 **신은희**
영상디자인 **이정민** 무대감독 **박선영** 기획 **김민솔**

기획의도

원어민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한국어 원어민'인 셈인데 두 단어의 조합은 어딘가 낯설다. 그냥 '한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덜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 이 둘을 분리해본다면?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한국인이 아니라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과 'oo 나라 사람'이라는 것은 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특히 단일언어국가인 한국에서는 언어 정체성이 곧 국가 정체성과 연결되고, 개인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 언어, 국적, 인종, 나이, 성별, 외모… 한 개인을 규정하는 수많은 경계선들 속에서 과연 '나'는, '나의 언어'는 어디에 있는가?

작품설명

8명의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전문배우가 아니지만 모두 어떤 언어의 네이티브 스피커들.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언어들의 경계선상에 있거나 경계를 넘나들며,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자기만의 언어'를 찾는다. 태어난 곳, 자라온 환경, 직업, 국적, 외모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한국어와 다른 언어로, 익숙한 방식과 자기만의 방식으로 관객과의 만남을 시도한다.
각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이들이 속한 사회와 제도가 드러난다. 출연자들은 언어 시험, 각종 제도와 통계자료, 대중매체의 형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주하며 기존의 체제에 작은 진동을 일으킨다.
한편 무대에는 이곳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할 수 없는 무대 밖의 사람들. 한국어가 당연하지 않은, 여러 경계들을 넘나드는, 혹은 자기만의 언어를 찾고 있는 또 다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다. 공간, 소리, 영상, 몸을 통해 무대 위로 불러와진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다원예술

신승열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대미술과 예술사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대미술과 전문사재학
인천아트플랫폼 4기 입주작가

활동 실적
– 무대디자인
2015 <비포애프터> 연출 이경성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2015 <시간의 난극> 작·연출 신재훈, 혜화동1번지
2013 <노란달> 작 David Greig,
연출 Tony Graha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2014 <타조 소년들> 작 Keith Gray,
각색 Carl Miller, 연출 Tony Graham,
국립극단 소극장판
2014 <The LOST> 작 DOCK, 연출 김현우, 수현재

– 전시
2014 인천아트플랫폼 4기 입주예술가
결과보고 展
2013 인천아트플랫폼
<2013 PLATFORM ACCESS> 展
2011 전시기획/공간디자인 <Re-vival> 展
사진 및 오브제(디자인 및 제작) 전시
YWAM Go-center

2016.1.22(금)~1.24(일) 금 8시/토 3시, 7시/일 3시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고비도시

Gobi+city

연출 **신승열** 출연 **배윤범, 오정택, 이은지, 문가에** 미술 **신승열**
협력연출 **신재훈** 조명디자이너 **김형연** 사운드디자인 **Kayip**
기획 **조하나** 드라마터그 **유혜영** 퍼실리테이터 **이동민**

기획의도

<고비도시>의 무대는 몽골의 전통가옥 게르나 인디언의 거주용 텐트 티피처럼 이동하면서 생활하기 가장 적당한, 기준이 될 만한 형태와 크기를 찾으려고 한다. 무대의 물품들은 공연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식을 하지 않고 특이한 모양을 갖지 않은 기본적인 구성인 것이다. 이런 구성은 무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연극 창작과정의 중요한 요소인 배우, 공간, 동선 등 다른 것들을 더 잘 보일 수 있게 해주고 연극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리고 이런 물품들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무대를 통해 고대로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연극성을 탐구하면서 새로운 연극의 언어를 발견하는 실험을 해볼 수 있다.

작품설명

The nomad theater project는 끊임없이 이동하며 작업하는 에너지를 무대 위에 구현하고자 시작된 무대미술 프로젝트이다.
The nomad theater project는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디자인을 개념화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가와 협업하여 모든 것이 가능한, 근원에 충실한 무대를 모색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도시인의 삶을 다룬다.
고비도시(Gobi+city)는 몽골어로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란 뜻을 지닌 고비사막의 '고비'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공간인 '도시'의 합성어이다. 거칠고 풀이 자라지 않는 도시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질주하는 이동 가능한 공간에 구현한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무용

김범호 (김모든)



학력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졸업

수상경력 2015 국제안무플랫폼 'CAMPING' 한국대표 선정/
프랑스국립무용센터 주최, 댄스랩 서울 주관
2009 제30회 서울무용제 경연신인안무상 부문
안무상 수상

활동 실적 2015 문화역 서울284 기획프로그램 '불꽃의 놀이'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 안무 및 출연
2015 국립현대무용단 끝-레지던시:
안무가 초청 프로젝트 <17cm> 출연
2014 제35회 서울무용제 경연대상부문
<쉬어가는 고개> 출연
2014 국립현대무용단 해외안무가 초청공연
<Line Rangers> 출연
2014 19th MASDANZA <Fake Disinterest> 출연
2013 국립현대무용단 단원
2012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자리> 안무 및 출연
2012 모든 컴퍼니 창단(대표 김모든)

2016.1.22(금)~1.24(일) 금 8시/토, 일 4시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침묵의문

Gate of Silence

연출·안무 **김범호** 출연 **김태희, 정규연, 정수동, 최용승**
설치미술 The Bite Back Movement(**이승연**, Alexander Augustus)
음악 **도재명** 의상 **채규인** 조명디자인 **이승호** 무대감독 **강노을**
드라마터그 **이경성** 그래픽디자인 **김보휘** 사진 Chad Park
영상 **김성민** 기획·제작 **서상혁** 멘토 **박찬경** 퍼실리테이터 **지영관**

기획의도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인다.

인간으로서 존재 자체의 의미를 끊임없이 사유하면서 선명하게 떠오른 최초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실재와 비실재가 마주하는 사실 속에 촉발되는 내면적 갈등을 신체 언어로 형상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작품의 시발점이다. 특히 '산 자'와 '죽은 자' 간에 사실 관계와 감정 관계가 얽히면서 생겨나는 실재의 허무와 유한한 시간으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감정의 편린들을 무대 위 움직임으로 연출해보고자 한다. 하여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거듭 변화하며 또 하나의 관문으로 가는 문을 상상해본다. 산 자가 감내하는 죽음을 통해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 인간 존재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세계로의 관문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그려본다. 돌이켜보건대, 이 모든 의문은 단 하나의 침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작품설명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인다. 하나의 문이 여러 형태로 변화되며 이 세계의 길을 여러 갈래로 만난다.
그 여정에서 인간은 밝음과 어둠,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흐르는 곡선을 형성하며 삶의 궤도를 그린다.
한 순간의 관문을 지난 후 다음과 그 다음, 또 다른 문이 있다고 할 때, 삶의 끝은 죽음이라고 차마 단정할 수가 없다.
그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과
그 사이사이 경계의 영역을
<침묵의문>을 통해 가시화
하고자 한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무용

이수윤



학력 경희대학교 무용학과 동대학원 졸업

활동 실적
2015 고양 안무가협회 공연
<Such as Inner> 공동안무 및 출연
2014 고양호수예술축제 국내초청
<고도에게 뛰다> 연출 및 출연
2014 창작산실시범공연
<고도에게 뛰다> 연출 및 출연
2014 공중이미지극 <시간의 벽> 공동안무 및 출연
2013 문화역서울 284 OPEN STAGE
<정말, 아름다운 일상> 공동안무 및 출연
2013 고양호수예술축제
<정말, 아름다운 일상> 공동안무 및 출연
2013 13th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밥짓는 냄새> 공동안무 및 출연
2012 이전 <등. 등(背. 橙)>,
<노랑어리연꽃>, <Hissing> 외
다수 안무

2016.1.23(토)~1.24(일) 6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Inherent Vice

(내재적 손실)

연출·안무 **이수윤** 출연 **강진안, 김희중, 이수윤**
사운드디자이너 **전광표** 무대감독 **홍준석** 무대디자인 **이재성**
조명 **신호** 작곡 **안동성** 기획·홍보 **배준용, 박유진**
멘토 **주용철** 퍼실리테이터 **지영관**

기획의도

순환구조로 움직이는 우리의 신체는 접촉하며 소리로 확장된다.

Inherent Vice(내재적 손실)는 개인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소리로 형상화하고, 관계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 모습을 표출한다.
'몸의 소리를 가장 본질적인 감성의 의도라고 가정한다'에서 출발된 이 작업은 각 개개인이 듣고 느끼며 다르게 해석하는 소리와 움직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고를 던질 것이다. 우리는 던져진 사고를 통해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서 살아있는 나의 일상을 포착하고 '나', '너', '우리'를 재인식하길 바란다.

작품설명

탄생에서 소멸로 치닫는 장면들의 움직임에는 소리가 있으며 이것은 접촉과 행위로 형상화된다.
암전 상태에서 시작된 무용수의 움직임과 소리의 탄생은 신체의 부딪힘으로 각자의 언어가 되어 들리기 시작한다. 단순한 소리에서부터 확장된 소리는 하나의 순환구조를 형성한다.

무용수 각자의 형성된 순환은 일상의 것들과 화합하여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는 확장되어 경쟁하며 사회적 구조로 나아간다.
점차 이들의 관계가 극으로 치달았을 때 형상화된 소리와 대비되는 소리의 구조가 들어온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게 어긋나는 순간(고유의 손실)'적 경험이다. 무대엔 불협화음이 쌓여가고, 이 불협화음적 현상을 벗어나려는 무용수와 관객들은 자신들과 주변 사람들의 작은 파장을 관찰하게 된다.

좀 더 깊이 내재되어 있는 소리의 움직임을 보고 듣고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몸에서 흐르는 물이고 또 생각의 표현이며, 서로를 감싸 안는 소리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연극

설유진



학력 한양대학교 유럽언어문화학부
독일어권언어문화전공

활동 실적 극단 907 대표
2014년 서울연극제 희곡공모전
<희곡아 솟아라!>의 당선작,
희곡<씨름>의 작가다.
연극 <초인종>은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연극분야에 선정된 설유진의
첫 연출작이다.

2016.1.28(목)~1.31(일) 목 8시/금 4시, 8시/토 3시, 7시/일 4시
동숭아트센터 동숭소극장

초인종

극작·연출 **설유진** 음악 **박지만** 조명 **김문숙** 의상 **홍문기**
기획 **설유정 권영** 조연출 **설현석 최소진** 그래픽·사진 **김솔**
출연 **황선화, 유준원, 양희선, 권태진, 권혜영**

기획의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되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지금, 짙은 안개에 눈이 먼 이들을 깨우는 초인종이 울린다.

작품설명

안개 속, 초인종이 울린다.
몇 번이고 울리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왜 아무도 안 나오는 걸까?
연극 <초인종>은
안개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다 안개가 되고만
어느 가족의 이야기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연극

전진모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전문사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활동 실적
2015 연극창작환경 개선 지원작업 선정작
<한여름밤의 꿈_부산밤바다> 작·연출
2015 대학로예술생태프로젝트 쇼케이스
<별별방담> 연출, 공동구성
2014 두산아트랩 <이런 꿈을 꾸었다> 연출
2014 단편소설입체낭독극장2015 <한탄> 연출
2013 틈@혜화동1번지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연출
2011 단편소설극장전
<서울 1964년 겨울> 연출, 구성

2016.1.28(목)~1.31(일) 목, 금 8시/토, 일 5시
문화역서울284 RTO

버려드릴까요?

연출 **전진모** 드라마터그 **김슬기** 출연 **박윤석, 박형범, 빙진영, 윤정로, 김한수, 김현숙** 조명디자인 **노명준** 무대디자인 **김다정** 조연출 **조성현** 기획 **김민솔** 퍼실리테이터 **오준석**

기획의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맥락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그러한 무수한 '자기'들이 만나고 모여서, 만들어지고 허물어졌다가 새롭게 구축되는 조각 모음과 같다. 무대에서 그러한 자기를 꺼내놓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대면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흔적들을 추적해보고 싶었다. 일상에서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나와 너를 관찰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넘어 사회를 의식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어쩌면 그 순간 비로소 연극은 극장을 나와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작품설명

<버려드릴까요?>에서는 지금 우리의 주머니 혹은 지갑 속에 들어 있는, 각자의 하루하루를 증언하는 영수증을 통해 이러한 생각을 연극으로 구현해보고자 했다. 이제 이 연극의 관객은 단순히 무대 위의 사건을 지켜보는 관찰자를 넘어, 자기의 맥락을 가지고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배우로서 극장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연극

황준형



학력 극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연영상학부 졸업

활동 실적
2015 극단 해를보는마음 우즈베키스탄 초청공연
<두드려라, 맥베스!> 연출
2015 극단 해를보는마음 동숭아트센터 정기공연
<무협활극, 조씨고아> 연출
2014 극단 해를보는마음 정기공연
<무협활극, 조씨고아> 연출
2014 전통연희집단 아울 음악 연희극
<세요고의 노래> 작·연출
2014 극단 해를보는마음 중앙아시아 초청공연
<두드려라, 맥베스!> 연출
2013 극단 해를보는마음 정기공연
<두드려라, 맥베스!> 연출
2013 극단 해를보는마음 정기공연
<열대의 안나> 연출
2013 하이서울페스티벌 <두드려라, 맥베스!> 연출
2012 밀양여름공연예술제 젊은연출가전
<두드려라, 맥베스!> 연출

2016.1.28(목)~1.31(일) 목, 금 8시/토 3시, 7시/일 4시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Monster–고백

원작 Paul Anthelme 각색·재구성 **황준형** 연출 **황준형**
조명디자인 **김영빈** 음악디자인 **강은구** 홍보디자인 **퐁당디자인**
홍보 **JK COMPANY** 출연 **신한울, 한기헌, 배정웅, 이기복, 김지운, 김성재, 배아영, 이성수, 이지훈, 전창근, 조재욱, 주창환, 한지혜, 송광호**
제작PD **김종식** 기획PD **김지윤**

기획의도

인간, 그 추악함이여,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누구의 잘못인 것인가,
2015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과연, 누구의 잘못인 것인가.
그 어느것에도 정답은 없다. 나의 선택과 책임만이 따를 뿐이다.
2016년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묻는다.

작품설명

"인간본성을 시각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신체언어 개발"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개발에 들어갔다. 첫 시작은 조지오웰의 정치우화 소설인 <동물농장>에서 출발했다. 1차 워크숍을 통해 소설 동물농장을 희곡화 하여서 쇼케이스 공연을 가졌고, 이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기 위해 모든 대사를 지우고 베르베르의 <파피용>에서 나타난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고난의 연속… 더 이상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갈팡질팡… 앞서 제시한 "인간본성을 시각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신체언어 개발"의 작업과는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폴 앙텔므(Paul Anthelme)의 희곡 <Nos deux consciences>에 큰 영향을 받아 인간본성탐구와 다양한 심리제스츄어 개발에 적합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3월부터 이어져온 고민이 점점 구체화되어 간다. 드디어…
올해는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 같다. 많은 경험과 더불어… 어쨌든 이번 공연이 2016년의 첫 출발점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관객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아름다운 우리의 하루하루를 위하여.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다원예술

조익정



학력 2011 첼시예술대학교 석사(순수미술 전공), 런던, 영국
2009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회화판화 전공/미술사학 부전공), 서울, 한국

활동 실적 2014 서울 코너아트스페이스 <너네가너네> 기획
2014 서울 교역소 주최 공연 프로그램
<상태참조>에 공연 출품
2013 런던 Gallery on the corner 영상작품 출품
2013 더블린 The market studios와 Granby공원
공공 상영 행사 기획 및 참여
2013 런던 리젠트 운하에서 상영회, 낭독회,
원탁식 토론회 기획
2012 런던 Arts Admin 영상작품 출품
2010 토탈미술관, 상상마당, 두산갤러리 전시 참여

2016.1.28(목)~1.31(일) 목, 금 8시/토, 일 5시, 8시
탈영역 우정국(구 창전동 우체국)

스폿

SPOT

기획 **조익정** 출연 **문보람 외 다수** 무대디자인 **이주요, 정지현**

기획의도

지난 여름, 언노운 패키지스(Unknown Packages)라는 퍼포먼스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뉴욕의 퀸즈 미술관에서 진행한 이 워크숍은 각기 다른 매체(회화, 설치, 퍼포먼스, 영상)를 사용하여 시각예술 언어를 구사해온 미술작가들이 각자의 장르 안에서 고민하고 연마한 스토리텔링을 '극화' 해보는 실험과 교류의 장이었다. 이번 작품을 기획하는데 이 퍼포먼스 워크숍에서의 경험이 토대가 되었다. 초반에는 극의 연출과 출연을 병행해보기로 하고, 구술과 동작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고, 점차 공연을 펼치는 장소와 환경에 대한 생각, 미술적 매체를 극의 요소로 활용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기획하였다. 그간 쌓아온 고민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실험을 이번 무대에서 실현해보고자 한다.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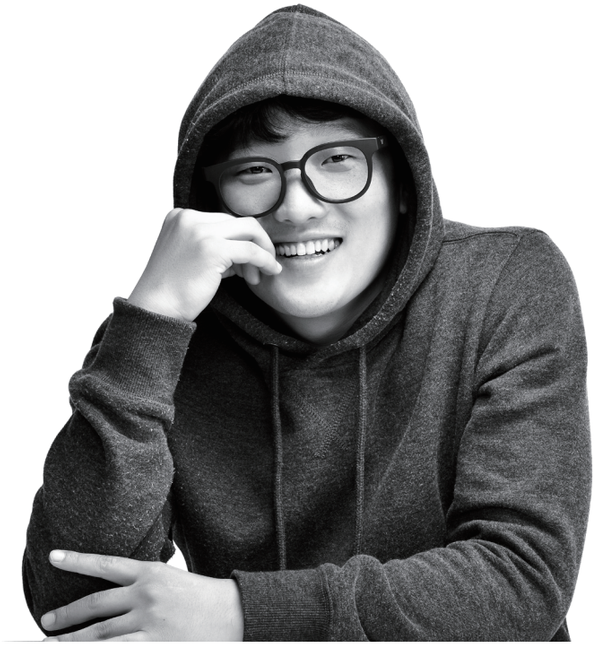
< 스폿 >은 한 명의 화자와 4~5명의 출연자들이 펼치는 스토리텔링 퍼포먼스이다. 화자는 구술의 리듬감을 조절하고, 무대 공간을 이리저리 꿰뚫으면서 극의 에너지 구조를 구축한다. 반면 출연자들은 소품과 그들의 신체를 사용하여 이야기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스폿>에는 화자 '나'를 비롯하여 소년들, 노인, 주민들, 경찰 등의 인물들이 마주친다. '나'를 제외한 인물들은 어느 강가에 자신들의 즉물적 욕망을 투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위협을 가하고, 악의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등장인물들 중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강가에 간 유일한 인물인 '나' 는 때로는 다툼에 휘말리기도 하고, 다툼을 조장하기도 하면서 <스폿>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조망한다.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무용

안지형



학력 한성대학교 무용학과 현대무용 졸업

수상경력
2014 인천무용제 연기상 수상
2012 Modafe spark place 우수상 수상
2012 제5회 후쿠오카 프린지 댄스 페스티벌 Fukuoka Dance Fringe Festival CODEX AWARD 2011 수상
2011 Modafe off stgae 우수상 수상

활동 실적
2014 서울국제공연 서울댄스컬렉션 <해(咍) 탈> 안무 및 출연
2013 Modafe 국내초청작 <나무 = 존재의 무거움> 안무 및 출연
201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댄스컬렉션 <개(槪)소리> 안무 및 출연
2012 Modafe SPARK PLACE <Vs> 안무 및 출연
제5회 후쿠오카 프린지 댄스 페스티벌 Fukuoka Dance Fringe Festival <개(槪)소리> 초청공연 참가
2012 제4회 어반 무브스 국제무용제 Urban Moves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개(槪)소리> 초청공연 참가
2011 Modafe off stage <finla round> 안무 및 출연
2010 crossing of movements project – Comp 2010 레지던스 프로그램 국내무용 아티스트 참가

2016.1.29(금)~1.30(토) 금 8시/토 6시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해(咍) 탈

연출·안무 **안지형** 출연 **신희무, 손지민, 이준형, 문상준, 주영호, 표한진, 이민형, 안지형** 무대감독 **이도엽** 조명감독 **허환** 음악감독 **장명규** 사진 **신귀만** 기획·홍보 **이하림** 의상 **성민경** 그래픽디자인 **김보휘** 멘토 **김서령** 퍼실리테이터 **이동민**

기획의도

하회별신굿 탈놀이는 지배계층의 허구성 폭로, 비판, 상민들의 삶의 애환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며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탈놀이가 지닌 의미와 특징을 모티브로 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리서치를 통해 관객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주체와 객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며, 또한 작품 해(咍) 탈은 하회별신굿 탈놀이 6마당(무동, 주지, 백정, 할미, 파계승, 양반 선비)의 특징(재담 및 음악, 춤사위)과 각 마당의 캐릭터 조사를 통해 스토리를 창작하고, '탈놀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전통 소재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목표로 새롭게 해석한 탈놀이 판을 구성할 것이다.

작품설명

하회별신굿 탈놀이 하회탈 중 '이매 탈'은 바보 탈.
악의 없이 웃는 얼굴에 턱이 없어 더 우스꽝스럽다. 느릿한 말투에 팔 한쪽은 굽었고 비틀비틀 몸마저 자유스럽지 못하다.
조금은 바보스럽지만 순박한 '이매'
이매가 바라보는 주지, 할미, 양반, 선비는 어떤 모습인가?
동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이매'라면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ARKO YOUNG ART FRONTIER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사업 후기

전통예술 김시율

오리엔테이션 및 중간발표 워크숍을 통하여 다양한 창작자들과 교류하며 저의 작품에 대하여 토론하고 함께 고민 해주며 문제점을 체크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리서치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관객들이 찾고 있는 작품의 성향, 타 장르와의 융합이 무대에서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를 직접 보게 되어 작품 제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통예술 김동근

타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설렙니다. 그들의 시선과 내 시선을 한결음 떨어져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예술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통이라는 점이라 생각할 때 앞으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AYAF에서 기획한 국립생태원과 과학창의재단의 방문은 제 개인의 시선을 편협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예술 박경소

처음 AYAF로 선정되었을 때 이전까지는 혼자만의 작업을 개인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내 놓았지만 AYAF를 통하여 조금 더 정리된 협업과정을 통하여 발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컸습니다. 퍼실리테이터와의 미팅이나 사전 정산 컨설팅을 통하여 혼자서는 풀기 힘들었던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통예술 조종훈

AYAF는 이 시대의 젊은 창작자가 자기의 이상과 창작 작업에 대한 고민들을 토해낼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특히 창작자의 자유로운 해외리서치와 성장프로그램, 그리고 창작자들 간의 워크숍은 창작과정에 생겨나는 고민들을 덜어낼 수 있으며, 때로는 문제의 해법까지도 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김인규

2년 전부터 오광대놀이를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 사업을 통해 창작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만들어져서 음악-(무용)극을 올릴 수 있게 되어 기쁨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연극 전진모

시도하고 부딪혀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설렙니다. 그리고 그만큼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다양한 작업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수많은 생각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 설유진

성장프로그램 중 국립 생태원에 방문해 접한 최재천 원장의 강의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또 국내 및 해외리서치를 통해 개인적으로 엄청난 수의 공연과 작품들을 감상하였고 이를 통해 현 공연예술의 한계와 가능성, 앞으로 내가 할 작품의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퍼실리테이터의 조언들과 극작가 양수근 멘토에게서 얻은 배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극 김유진

이번에 지원한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의 연구조사와 현장리서치가 필요하고 선례가 많지 않아서 기관의 지원이 꼭 필요했었는데, AYAF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해외리서치를 다녀온 것은 이 작품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AYAF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스무 명의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는 시간 역시 좋은 자극이 되고 있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연극 황준형

2015년은 AYAF 사업선정을 시작으로, 2016아비뇽페스티벌 공식초청, 동숭아트센터에서의 정기공연 등등..좋은 소식이 유난히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결실은 고민을 함께 나눌 많은 동료들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많은 지원과 여러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신 인력개발예술원의 모든 분들과, 열정으로 많은 부분 채워주신 오준석 피디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보마 화이팅!"

무용 하영미

선정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탐구하고 싶은 욕심 많은 저에게 정말 값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습과 내면을 그리는 예술가가 되고픈 하영미 입니다." 2차 심사 때 제가 했던 말인데요, AYAF를 통해서 그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무용 이수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아무래도 선행사례가 많이 없다보니 제작과정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게는 AYAF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크고 작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접해보지 않았던 제작부분과 퍼실리테이터, 멘토, 교부 및 정산컨설팅 등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용 김나이

AYAF 사업에 선정되어 안무가로서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로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AYAF는 신진 예술가의 성장 가능성 인큐베이팅을 위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예술가로서 자아 및 정체성 확립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용 김범호

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무용수와 안무가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무용수로서의 활동이 많았는데, 올해 AYAF 선정으로 안무가로서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작품제작의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용 도황주

AYAF 5기에 선정되고 주변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서를 다루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고, 이번 AYAF를 통해 본인의 연구에 깊이를 더 할 수 있어 더 없이 기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가능성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큽니다.

무용 김성의

백여 년 전, 멕시코로 일하러 떠났던 천여 명의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업을 했습니다. AYAF 해외리서치를 통해 쿠바에 가게 되어 그분들의 후손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쉽게 가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과 퍼실리테이터와의 만남, 기획 프로그램, 타장르와의 소통은 창작자의 적극적인 표현성과 자신감, 갇혀 있던 예술의 고집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우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무용 안지형

이번 AYAF를 통해 다른 분야 젊은 예술가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보고 배우고 느끼며 스스로 에게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원예술 신승열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저의 작업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특히 창작자분들의 중간발표 워크숍에서 각자 해외리서치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작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고 있는지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원예술 박민선

AYAF를 통해서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작업인 <사이언스쇼: 스페이스 로맨스>에 대한 리서치와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예술가로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아니면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AYAF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AYAF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원이 지원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세심한 배려를 통해 AYAF를 거친 예술가로서의 자아가 형성되고,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과도 AYAF를 통해서 동료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원예술 장병욱

지난 몇 해 동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오며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던 순간은 "이 작품이 던지는 화두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가?"라는 고민이 밀려들 때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중간발표 워크숍을 통해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창작자들의 화두에 대해 듣고, 저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해온 멘토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가진 고민들이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사람들과 충분히 나눌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원예술 조익정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의 협조를 받아 작품 발표 준비 단계에서 스스로 좀 더 객관성이 확보된 이미지 언어를 구축하고 공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켰습니다. 장기적으로 본인이 하고자하는 실험,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질문들에 답을 제시하며 활동하는 데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AYAF 2015 YOUNG ARTIST

창의적인 젊은 예술가 육성을 위해 함께 힘 써주신 분들

강석란, 강은구, 김기영, 김동규, 김매자, 김서령, 김성환, 김승환, 김웅기, 김진영, 김진이, 남긍호, 박성혜, 박찬경
성기웅, 송 전, 양수근, 오준석, 유은선, 이건용, 이동민, 이민정, 이양구, 이진원, 정수복, 조성주, 조형준, 주용철
지영관, 차정훈, 최재천, 최성신, 황병기(가나다 순)







www.artistree.or.kr

문화예술의 미래를 선도하는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의예술인력센터



(1026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13번길 10(사리현동 464-1)
Tel **02-760-4663** Fax **02-760-4647**
www.arko.or.kr